

# 20대 국회 법안처리율 ‘최악’... 일하는 국회법 0% 이행

법안심사소위 2회이상 실시한 곳 10월 한달간 정무위원회 1곳 그쳐  
계류법안 1.6만건, 내년 5월 폐기

국회 상임위원회별 ‘일하는 국회법’ 이행률이 지난달 0%를 기록했다. 20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사실상 끝난 가운데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악’을 기록할 전망이다.

5일 국회 17개 상임위의 법안 심사현황 분석 결과, 10월 한 달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회 이상 실시한 곳은 정무위원회 한 군데에 그쳤다. 이마저도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2소위원회 각각 한번에 불과했다. 전체 법안심사소위 25곳 중 ‘일하는 국회법’을 이행한 곳이 한 곳도 없는 셈이다.

‘일하는 국회법’은 각 상임위에 법안심사소위를 두 개 이상 설치하고, 매월 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지난 4월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이 뒤늦게 도착해 문 앞에서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5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고, 6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에도 여야는 기초와 입장차가 커 법안 심사에 난항을 겪었다. 특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두고 올해 초부터 공방을 벌였고 야권 일부는 상임위 전체회의의 보이콧(불참)을 이어가기도 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치열하게 정쟁을 벌이기도 했다.

‘일하는 국회법’ 시행 달인 6월 규정을 준수한 법안소위는 전체 3분의 1에 불과했다. 7월에도 이행률이 36%에 그쳤고, 8월에는 8%까지 떨어졌다. 이후 9월에는 16%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비쟁점 법안 164



지난 8월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간사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간사(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 소속 김도읍 간사,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건을 처리했다. 지난 8월 2일 법안을 처리한 후 90일만이다.

법안 대량 처리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약 1만6000건에 달한다. 내년 5월 29일이면 모두 자동 폐기된다. 앞서 2016년 5월 29일 임기를 마친 19대 국회의 자동 폐기 법안은 9809건이었다.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이번 의회는 이보다 심각한 실정이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은 각당이 국회에서 처리를 희망하는 경제·민생 관련 법안을 취합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2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에게 고성·반말·삿대질 등을 하면서 다시 갈라졌다. 여야 3당 실무진은 이날 오후 첫 협의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은 ‘강 수석의 사과 없이는 법안-예산 처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올해 말까지 2020년도 예산 심사를 마쳐야 한다. 예산 심사를 끝내면 의정 활동도 사실상 접는다. 본격적인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총선거단 첫 회의를 열고, 한국당은 전날 총선거단을 출범하면서 ‘총선 정국’ 시동을 걸었다.

여당에서는 일부 의원이 뒤늦게 ‘일하는 국회법’ 강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의정 활동 막바지라는 것을 고려하면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 대법원장공관 리모델링에 4.7억 무단사용

감사원, 대법원 재무감사 발표  
해외연수 법관에 재판수당 지급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가 새로 취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공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예산 약 4억여원을 무단으로 가져와 쓴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또 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해외연수 중인 법관·법원공무원에게 재판수당과 재판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부적절하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던 것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법원 재무감사’를 5일 발표했다.

감사 내용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6년 5월 국회에 대법원장공관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으로 15억52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9억9000만원만 편성했다. 그

러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근무환경 개선’과 ‘노후관사유지보수’ 등의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국회 심의와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리모델링 사업에 전용했다.

‘국가재정법’ 등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가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이용 또는 전용한 예산이 총 4억751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법원행정처가 상당수 법원이 해외연수 중인 법관·법원공무원에게 재판수당 혹은 재판업무수당을 잘못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개정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에 따르면 국외 소재 대학교 등에서 해

외연수를 위해 파견 중인 법관·법원공무원에게는 재판수당과 재판업무수당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 23개 법원이 해외연수를 위해 국외 파견 중인 법관 6명과 법원공무원 56명에게 재판수당 및 재판업무수당으로 2270만8870원을 지급했다”며 “이중 회수한 돈은 25만7140원”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의 예산 집행부서와 회계 검사 부서가 분리돼 있지 않아 회계 검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회계 검사 운영을 내실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감사 결과를 반영해 실무를 개선하겠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5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하방압력 대비 정책수단 총동원”

조정식 의원, 17일 재정점검회의 개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여당·정부)은 올해 두 달간 하방압력에 대비하기 위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17일 재정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조 의장은 5일 오전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 성북구 네 모녀 사망 등 비극적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확장재정을 통해 국민생활과 건강, 안전, 복지 등 포용국가 기반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여권의) 확장예산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지

난달 발간한 재정감시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의 내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재정지출 비율은 23%”라며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19위”라고 설명했다. 경제 규모에 비해 재정 역할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조 의장 주장이다.

조 의장은 “경제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확장재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이런 상황에서 서민 지원 예산과 일자리·사회안전망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라며 “야당이 예산 삭감 공세에 여념이 없는 데 참으로 답답하고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

/석대성 기자

## “내년 총선공천 과정 청년층에 방점”

민주당, 총선거획단 1차 회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과정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막말 이력을 철저히 검증한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학사비리 의혹 등으로 돌아선 청년층의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5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총선거획단 1차 회의를 실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총선에서 야당의 발목잡기가 되지 않도록 다수 의석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재집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기획단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야당이 아주 심하게 발목잡기를 하는 바람에 중요한 일을 못한 것이 매우 많다”며 “앞으로도 정치개혁법이나 검찰개혁법 등을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총선거획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켜야 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21대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 확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총선거획단 단장을 맡은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공정과 혁신, 미래 가치를 염두에 두고 활동하겠다”며 총선 공천 과정에서 청년층을 방점에 둘 것을 예고했다.

/석대성 기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분할납부 사업장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 등 분할납부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은행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만 할 수 있었다.

공단·금융결제원·카드사 간 협의를 통해 10개 카드사가 참여하였고, 전산 개발이 완료된 신한, 현대, 하나, 삼성, BC, 전북, 수협, 광주카드 8개 카드사부터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산 개발중인 2개 카드사 및 아직 참여하지 않은 카드사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손현경 기자

## 육군, 군장병 1만5000명에 패딩점퍼 보급

한겨울 추위에서 장병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동계점퍼(패딩)가 11월 초부터 보급된다. 이번에 보급되는 동계점퍼는 패딩형태로 동계 작전 및 경제활동을 제외한 일반근무에 한해 착용된다.

본지가 5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새롭게 보급되는 동계점퍼는 최전방GOP사단인 3·6사단에 보직된 전 ‘병’에게 지급된다. 다만 올해 12월 전역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동계점퍼는 약 1만

5000벌 정도로, 군 당국은 향후 전방사단을 중심으로 육·해·공군 전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군안팎에서는 장병근무여건 향상차원에서 이번 동계점퍼 보급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군 내부자료에 따르면 동계점퍼는 화학생유로 만든 솜을 충전제로 사용하고, 원단의 결합방식을 바늘이 아닌 씬실링(열을 이용한 접착)으로 채택했다. 또한 알루미늄 코팅원단을 안감으로 사용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n@